

## 2015년 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38,424,918	전년이월금	3,497,368
지 로	5,575,730	우리은행	12,673,970
국민은행	6,804,310	하나은행	1,640,140
조흥은행	190,020	신한은행	2,120,190
외환은행	1,222,670	제일은행	1,425,040
농 협	2,355,370	기업은행	345,100
우 체 국	75,010	지정기탁	500,000

###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5,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 1명의 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2,467,74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579,000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81,000	교통비, 봉사자 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140,570	약 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529,420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2,124,65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1,220,000	심리치료, 문화체험등보육지원, 중병치료 지원금	
교육비	2,875,040	문구류, 책 등 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대출금상환	171,965	수녀원대출금상환	
노동사목위원회	6,600,000	장기수선충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2,609,74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총액	25,049,125	잔액(이월금)	13,375,793

### <쉼티 이용 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8	0	0	28
베다니아의 집	5	1	0	6
벗들의 집	11	1	2	10
마고네공부방	8	0	0	8



###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심거리.

입춘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데 때 아닌 추위가 모든 것들을 닫아 여미게 합니다. 열어 놓았던 창문, 얇아졌던 옷들,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었던 마음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낫설게만 느껴지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마음도 몸도 움크리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들 보다 더 많은 추위를 느낄 이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닫혀지려는 몸과 마음을 열어 재껴서 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리산 종주를 하고 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해를 살아갈 힘과 생각의 정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의 산행은 역시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해 한해가 힘들어지는지, 내년부터는 짐을 줄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산행은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많은 산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지리산의 경치를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산행 내내 지리산은 구름에 쌓여 눈과 비를 간간히 내리면서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지리산의 자태를 감추고 하얀 스크린으로만 보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덕분에 볼 것들이 없어 산행의 속도가 빨라 일찍 대피소에 도착해 쉴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활동적으로 사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저의 사목을 보면 실제적인 만남 보다는 서류나 말을 통해서 사목을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교종께서 저에게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양은 돌보지만 서류와 말로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였구나!"를 이번 산행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산은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산을 보듯이 스쳐 지나쳐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하지만 일 년이 지난 그 산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지도 않고 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전의 저의 활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아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로는 이주민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야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지금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만남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주민을 만나 그들의 상황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언론에서는 외국인 미등록자(불법체류자)를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와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의 범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나라는 몽골과 미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질에 있어서도 강도와 강간에 있어서 미국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등록자들을 그것도 중국이나 동남아 사람들을 오해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함께 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바라봄을 넘어서 마주하며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지만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 스쳐 가는 사람이 아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이 설 수 없다 하더라도 가까이 다가가 보고 손을 내밀고 미소 짓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오로의 인사로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록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 I 코린토 1, 2~3. -

봄을 기다리는 2월 갑자기 추워진 날에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평안 마르코 신부**

## 공지사항

###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3월 후원미사는 16일, 4월 후원미사는 20일, 5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5년 1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6명입니다. 그 중 2013년 8월에 소개해 드린 네팔 환자(남, 32세, 2011년 입국, 불법체류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환자는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기 위해 네팔에서 200만 원의 빚을 지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다리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받느라 구직기간 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간간히 일을 했지만 본국에 있는 가족들(아내와 아들, 고등학교 3학년인 환자의 여동생)이 생활하기에는 늘 부족하여 아내가 행상으로 흥차와 과자를 팔아 생계를 겨우 유지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작년 5월 24일에 라파엘클리닉을 통해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암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둘 다 빠른 수술(갑상선암은 수술, 뇌종양은 수술 후 방사선 치료)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3,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수술을 미루다가 2013년 8월 5일에 뇌종양수술을 받고 8월 19일에 퇴원하여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뇌종양 방사선치료도 필요한 상태였지만 우선 9월 30일에 적십자병원에서 갑상선암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크기가 커서 갑상선암도 동위원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우선 11월 11일부터 뇌종양 방사선치료 24회를 받았습니다. 뇌종양 방사선 치료 후 CT검사 등을 받아야 하여 갑상선 동위원소치료는 2014년 2월에 1차 치료, 8월에 갑상선 동위원소 2차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신경과, 방사선종양내과 진료에서 담당의사는 뇌종양제거수술과 뇌종양 방사선 치료 경과가 좋지만 뇌종양이 다시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갑상선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2월에 하고 3월에 검사결과를 볼 예정입니다.

치료는 많이 진척되었으나 아직도 경과관찰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 산하 이주노동자상담실에서는 정확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네팔인 통역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자를 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창의수업



소방대피훈련

## 4. 국민은행계좌 명의 변경 안내

기존 사용 중인 국민은행 계좌(028002-04-022668)의 예금주명이 미켈라 산티아고에서 SANTIAGO MIGUELA P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좌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예금주명만 영문으로 바뀐 것으로 후원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계좌로도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